FX Market Daily

2025-06-23

전일동향

전일대비 14.60원 하락한 1,365.6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4.60원 하락한 1,365.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80원 하락한 1,375.4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대규모 유입에 낙폭을 확대했다. 오후장에서도 환율은 저가매수 유입에도 불구하고 달러 공급 우위 장세에 하락을 지속하며 1,365.6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4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9.64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5.40	1375.40	1365.00	1365.60	1369.40
엔화	948.63	950.55	933.90	934.67	-
유로화	1586.55	1588.93	1572.08	1573.02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3	-6.21	-14.98	-30
결제환율(수입)	-0.1	-5.35	-13.11	-26.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국의 이란 공습에...1,37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65.60) 대비 7.35원 상승한 1,370.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이사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도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소화하며 상승이 예상된다. 미 달러화는 미국 연준 주요 인사의 금리인하 발언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관세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지 않았으며, 고용시장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시장은 월러 이사 발언에 주목했다. 한편, 주말 간 미군은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위험 종식을 위해 군사 개입을 실시했으며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이란 분쟁이 국제유가 및 국채금리 상승, 주가 하락,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패턴을 나타낸 만큼 금일 아시아 장에서도 증시 하락과 아시아 통화 약세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반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1.25 ~ 1384.25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625.51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35원↑
- ■ 美 다우지수 : 42206.82, +35.16p(+0.08%)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8.87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376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